

#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추진체 구성

### 전주시, 관광학계 대학 연구기관과 협약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광학계, 대학 연구소와 네트워크 추진체를 구성했다.

전주시는 1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류인평 관광경영학회 차기회장, 김영현 호남대 관광문화연구소 교수, 송광인 전주대 관광의식서비스연구소 소장(농어촌관광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 가치에 부합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구축을 위해 관광학계와 전주시와 광주지역 대학 연구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하는 내용의 관·학·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주를 세계적인 관광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한국학술연구재단 등재학술지(KCI)인 관광경영학회와 한국관광산업학회 등 2개 관광학술지,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 부설 관광연구기관인 전주대 관광의식서비스연구소와 호남대 관광문화연구소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시와 관광경영학회, 한국관광산업학회는 글로벌 관광 학술연구 및 저널 등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구축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서 공공의 가치에 부합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구축을 위해 관광학계와 전주시와 광주지역 대학 연구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하는 내용의 관·학·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대 관광의식서비스연구소와 호남대 관광문화연구소는 호남지역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마련을 위해 관광인력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협약식에 이어 지역관광 거점도시 및 글로벌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관광포럼을 열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류인평 관광경영학과 차기회장을 좌장으로, 광주대학교 박종찬 교수가 발제했으며, 송광인 전주대교수와 김영현 호남대 교수,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동혁 새전북신문 사회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도 펼쳐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관광 거점도시를 고유의 지역 관광 브랜드를 갖고 있는 도시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지역관광에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면서 "2010년 한국관광의 별 원년 수상, 2011년 한국관광 으뜸명소, 한국관광 100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미술쟁 가이드와 론리플래닛 등이 사랑한 전주시 만큼 경쟁력 있는 전주 관광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경계를 초월한 모두를 위한 포용적 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관광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북관광의 경쟁력 역할을 하는 전주시가 되도록 관광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16일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주동물원에 마련된 사회적경제 플랫폼인 '전주점점' 일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매 프로그램인 '만나자, 즐기자, 함께하자'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10여 개 팀이 참가해 가공품과 수공예품, 원예체험, 액세서리, 꽃차, 비건 쌀빵 등 건강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제품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애견의류 절도 40대 검거

완산경찰서에서 절도혐의로 A모(42)씨를 검거했다.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오전 11시경 완산구 모 애견용품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매장에 진열된 시가 10만원 상당의 애견의류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정디은 기자

## '놀이 권리 보장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 전주시, 도교육청 등과 '놀이공간 한마당' 개최

전주시와 전북도교육청, 아동구조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아이들을 위한 보다 나은 놀이환경 조성 및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시와 도교육청, 세이브더칠드런은 12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2019 놀이공간 한마당'을 개최하고, '우리에게 놀이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3개 기관이 지난 2017년부터 함께 추진해온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과발표와 함께 지역사회 내 놀 권리 인식 및 확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꾸며졌다. 먼저 1부에서는 각 기관의 놀이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진행방향과 협업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놀이전문가들의 강연을 청취한 후 교사, 학부모, 아동들과 함께 토론회를 통해 놀이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전주시와 전북도교육청, 세이브더칠드런은 12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2019 놀이공간 한마당'을 개최하고, '우리에게 놀이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간으로 채워졌다.

참석자들은 또 아동들과 함께 준비된 놀이부스와 사회연대 '아호놀이 어깨동무'가 준비된 관람놀이터에서 다 함께 놀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된 놀 권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놀이는 아동의 인지, 신체, 정서, 사회성 등 발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2019 놀이공간 한마당은 아동

의 놀 권리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일상과 놀이, 여가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아동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현재 △야호 숲놀이터 확충 △야호 책놀이터 조성 △야호 예술놀이터 조성 △점주형 창의학교 야호학교 확대 △야호 부모교육을 운영 등 '야호 5대 플랜'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내년 6월 '오픈'

전주시가 섬매립결정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의 핵심인 재활용센터(업사이클센터)의 명칭을 '다시봄'으로 정했다. 개관 시기는 내년 6월이다.

시는 재활용 산업과 재활용 가치를 선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 '다시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안에 끝내고, 운영기관과 입주업체 선정, 내부 인테리어와 장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6월 개관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재활용센터는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해 전주시 내 재활용 산업을 선도하고, 순의 도시(랜드마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 공모·다들마당 등 통해 인테리어 아이디어 확보

위한 공간으로, 시는 시민 명칭 공모를 거쳐 리메이크 되어 다시 만나, 봄을 상징하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지닌 '다시봄'이라는 공식 명칭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예술·교육·큐레이터·행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인 '다시봄 다들마당'을 구성해 재활용센터 콘텐츠 마련을 위한 구상에 착수했다. 시는 다시봄 다들마당을 통해 인테리어 시민 공모 방향을 논의하고, 센터 내에 설치할

공동작업장에 필요한 공구에 대한 1차 수요조사도 마친 상태다.

시는 이날 중 다들마당을 한 차례 더 개최한 뒤 센터 내부 인테리어 시민공모 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을 확정할 방침인데 총 공모 분야는 5개 분야로 조명 및 등기구, 전 시물, 소품, 가구, 바닥 및 벽면 마감이 해당되며,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하여 공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다시봄' 활성화를 위한 3가지 과제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상징적 장소와 △시민과 함께 하는 재활용 문화 정립과 △제품의 유통과 판매까지 지원하는 산업화로 정하고, 분야별 과제 해결을

위해 다들마당 위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재활용센터 다시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박물관적 관점에서 가전제품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를 기존 사용품을 재탄생 시킨 것으로 채워 넣어 재활용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구상이다. 민선5기 시 복지환경국장은 "재활용은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손 쉽게 발견하고,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문화를 의미한다"면서 "다시봄이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활용 전진기지로 발돋울 수 있도록 개관 이전에 다시봄 활성화와 과제에 대한 숙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끼'·'재능' 마음껏

###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전주시 35개 동 주민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축제 마당이 펼쳐졌다.

전주시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12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전주시 35개 동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각 동별 우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스타인댄스 △나타 △한국무용 △오카리나 연주 등 그간 갖고 닦은 끼와 재능을 맘껏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700여명의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회에서 으뜸상을 차지한 평화2동 기타교실과 팔복동 기타교실의 초청공연으로 수준 높은 기타 선율을 들려주었으며, 소리를 고고장구팀의 흥겨운 장구소리로 축제의 흥을 더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임명순 여의동 라인댄스팀 대표는 "우리 팀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일제잔재인 동명청을 '동산동'에서 '여의동'으로 새롭게 바꾼 여의동 주민센터 라인댄스팀"이라며 "아직은 초보지만 열정과 단합으로 열심히 연습한 만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오늘 참가한 많은 팀들이 단순 취미나 여가활동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재능기부를 하거나 마을축제 등에 축하공연을 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35개동 수강생들이 기량을 맘껏 발휘하며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순위를 떠나 35개동 모든 주민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복합혁신센터 건립 '속도'

### 전주시, 건립 주민설명회 혁신도시에서 2021년까지 전세대 이용 공간 조성키로

전주시가 문화시설이 부족한 전북혁신도시에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12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4층 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의 상생발전,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오는 2021년 전주시 덕진구 정동 1068-2번지(3816.5㎡)부지에 지하층, 지상3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부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문화시설까지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건물 1층은 유아놀이터와 어린이놀이터, 맘카페 등으로 채워지며, 2층은 어린이체험관과 어린이 교양교실 등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활동 및 다양한 재능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3층은 청소년 동아리방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연습실과 다목적공연장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복합혁신센터 층별 공간 컨셉트와 외부 공간, 향후계획 등 건축설계 기본 설계(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인근 주민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간계획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총괄건축가 현장자문과 기본구상용역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지난 7월부터는 건축설계 업체를 선정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센터의 운영방향 등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박용자 시 완산도서관장은 "복합혁신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공공시설로서 전북혁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부안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서 저병원성 AI 최종 판정

부안 동진강 일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약한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지난 5일 부안 동진강 일대에서 채취해 11일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 대한 환경과학원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 H5형 조류인플루엔자 최종 판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해당 지역에 설정했던 방역대는 해제했으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AI 발생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방역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가동, 철새도래지 주변 매일 소독, 오리농가 사용제한(48호) 실시, 거점소독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설 등 없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축산농가에서도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위험시기인 만큼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별 강화 갈아신기와 축사 출입전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